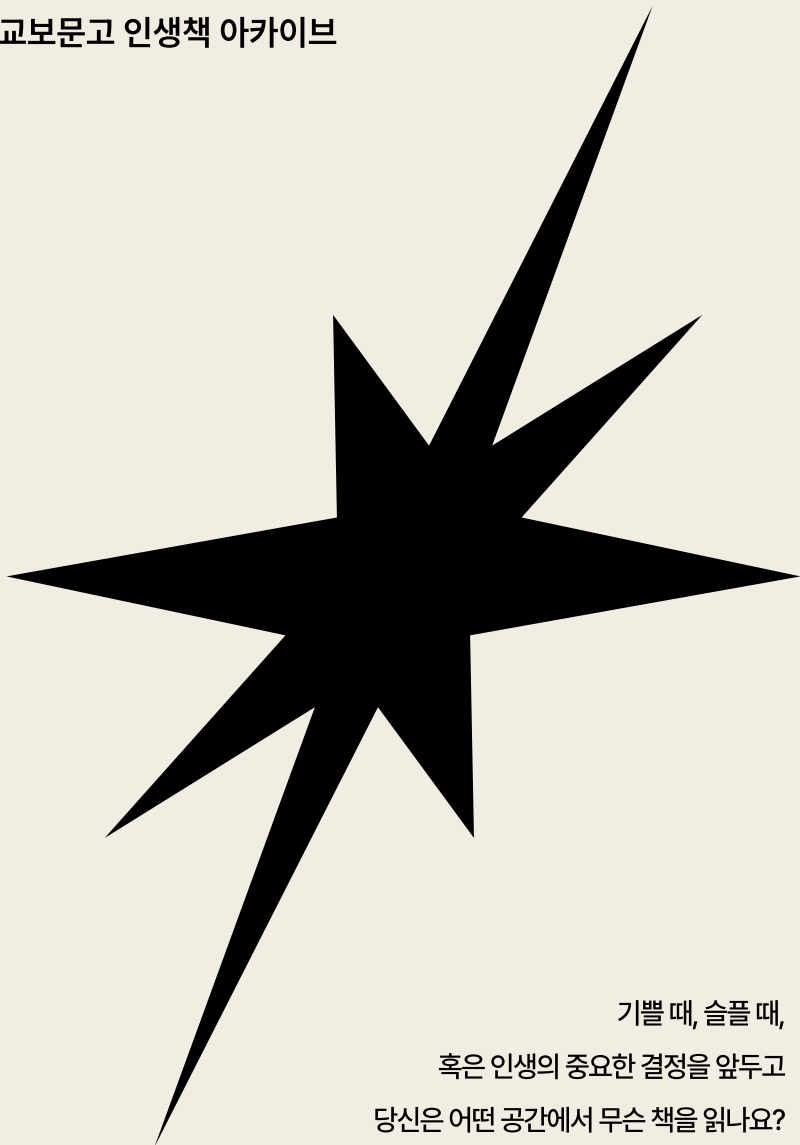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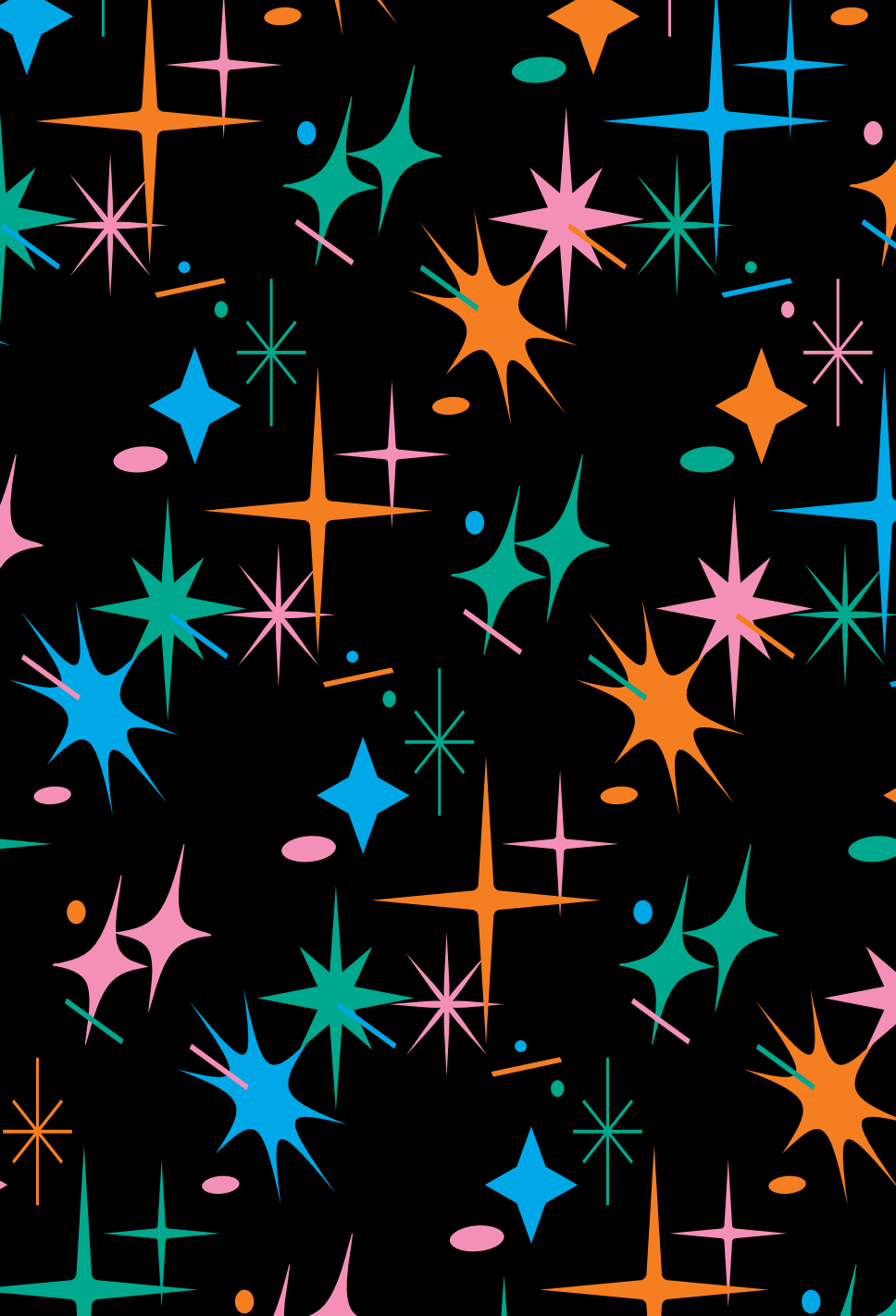
# 모두의인생, 책

교보문고 인생책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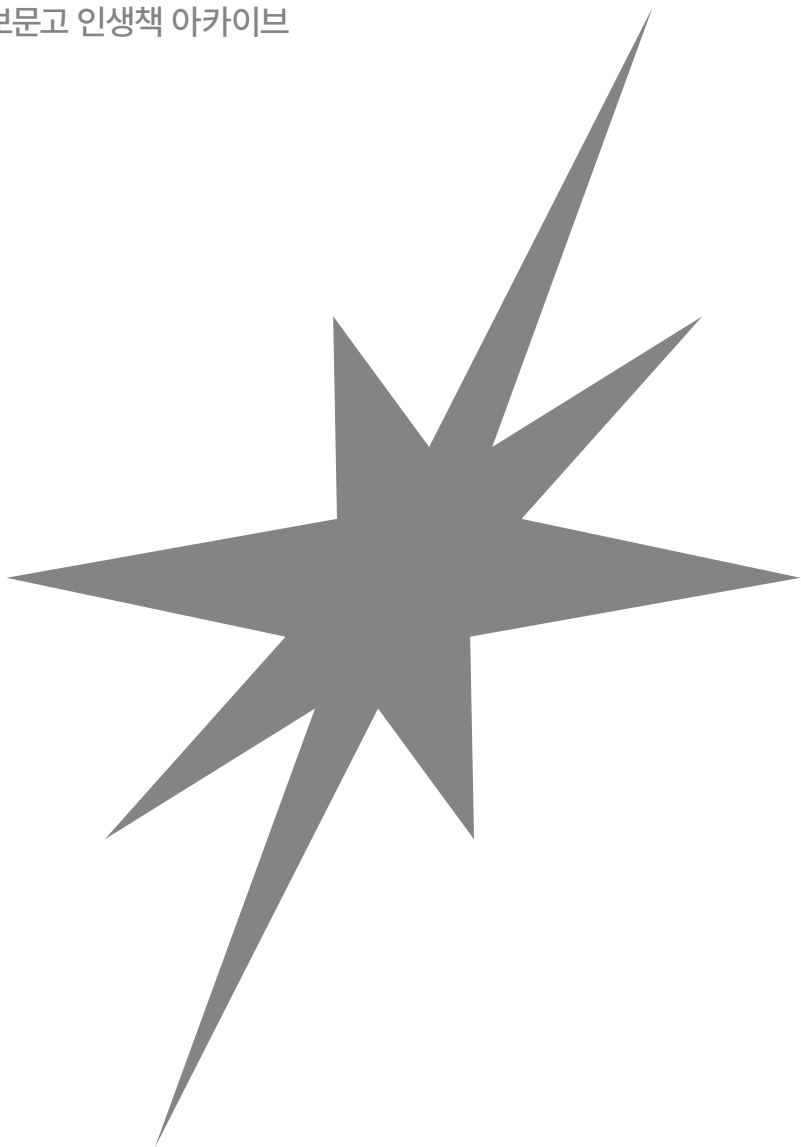
기쁠 때, 슬플 때,  
혹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당신은 어떤 공간에서 무슨 책을 읽나요?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고 싶은데  
처음이라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문제의 실마리가 되는 장소와 지혜를 발견하는  
당신의 인생책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 모두의인생,책

교보문고 인생책 아카이브





# 들어가는 이야기

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번득하고 떠오르는 책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인생책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빛처럼  
인생도 저마다 다른 형태로 빛납니다.  
평범한 학생부터 직장인, 몸을 담고 있는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 은퇴 후 제2의 삶을 사는 분들까지.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는 다채로운 인물들의  
인생책과 그에 어울리는 공간들을 아카이빙하여  
책이 가진 힘을 더 많은 독자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다양한 인생책과 그에 얽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담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책과 공간을 찾아보세요.

서로 다른 빛들이 모여 찬란한 스펙트럼을  
완성하길 기대하며,  
당신의 자리는 비워두겠습니다.

# 모두의 인생, 책

## 6 쓰는 사람 / Writers

박소령(PUBLY 창립자)  
하정우(AI미래기획수석)  
남궁인(응급의학과 전문의)  
백경(소방관)  
요한하리(저널리스트)  
김금희(소설가)  
정대건(소설가)  
정호승(시인)  
이우혁(소설가)  
이주혜(소설가)  
이지은(작가)  
이꽃님(청소년 작가)  
김선오(시인)  
최서영(크리에이터)  
강지영(프리랜서 소설 작가)  
최순나(도서관 관장)

## 40 고르는 사람 / Curators

독립서점  
PDF SEOUL  
로우박스  
책바  
번역가의 서재  
종이잡지클럽  
비주얼컬렉트  
비화림  
해호미  
마리서사  
윤슬서림

## 62 만드는 사람 / Creators

김해인(만화 편집자)

수수진(예술가)

NUA(아트 디렉터)

모티프원(북스테이)

김기남(인쇄소 사장)

DJ FUNNY

로즈문(한복작가)

## 78 읽는 사람 / Readers

## 90 부록

100인의 인생책 리스트

독립서점 책방지도



# 쓰는 사람

WRI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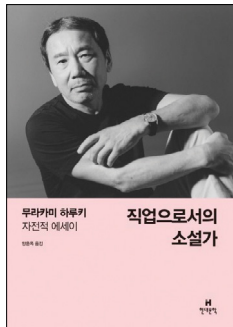


# 박소령

퍼블리 PUBLY 창업자/ 비즈니스 칼럼니스트



스타트업 퍼블리(PUBLY) 창업자입니다. 2015년에 창업해서, 2024년 회사 매각 후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습니다. 안식년을 보내면서, 10년 동안 창업자로서 내린 잘못된 의사결정 10가지를 회고하는 책, 『실패를 통과하는 일』을 썼습니다.



## 인생 문장이 있으신가요?

Be kind to yourself - HBO 드라마 <더 피트> 중

HBO 드라마 <더 피트>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응급실 의사가 하는 환자나 동료 의사에게 말인데, 제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나 자신에게 너그럽고 친절하기가 쉽지 않았던 환경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들으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된 문장이었습니다.

## 나에게 책임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읽어야 한다'기보다는, 그동안 읽어온 책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 자신을 탐구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한 요소로서 책을 읽고자 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순수한 즐거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아무리 열심히 읽더라도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무한함인 것 같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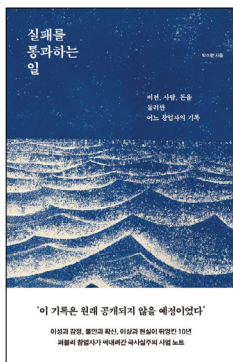
## 박소령의 인생책

###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2019년부터 퇴근 후 달리기를 했다. 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으나, 달리기만은 유일하게 나의 의지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말하기에 나는 창업자로 사는 내내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 책은 『직업으로서의 창업자』라고 바꿔 읽어도 손색이 없다. 10년을 버티게 해 준 책이다.

## 같이 읽기 좋은 책

### 실패를 통과하는 일, 박소령



‘이 기록은 원래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었다’

이성과 감성, 불안과 확신, 의심과 확신이 뒤얽힌 10년  
세월이 창업자가 아내에게 건네는 사랑의 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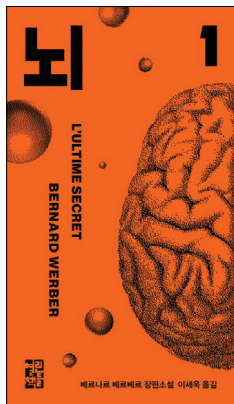


#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비서관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서 학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최우수 박사학위논문상을 수상했다. 2015년 네이버 랩스 입사 후 2020년부터 네이버 AI 랩 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 연구를 총괄하며 네이버는 물론 대한민국 AI 학술 성과 확대에 기여했다. 2023년부터 네이버클라우드로 옮겨 AI혁신센터장으로서 AI 연구 및 글로벌 생태계 전략을 총괄했다. 전 정부 디플정위원회 AI-데이터분과위원장을 포함해 공공 분야의 자문 역할을 다수 수행했고, 현재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서 대한민국의 소버린 AI를 위해 힘쓰고 있다.



책을 읽는 일에 대한 수석님의 평소 생각이 들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주로 업무와 연관된 도서를 주로 읽었어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업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을 읽는 식이지요. 지인들이 출간할 때 종종 추천사를 쓰다 보니 또 책을 읽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스로 시각이 다소 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읽다 보면 항상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배우게 됩니다. 역시 배움에 있어서 책이 가장 싸다는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좋아하시는 문장이 있으신가요?

“사람을 쓸 때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한다면 쓰지 말라”

(『삼국지』, 연의에서 손권이 형주 탈환 후 유비에게 제갈근을 사신을 보낼 때 장소가 제갈근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조연한 데에 대해 한 말)

“아직 희망을 버려선 안 된다. 포기하면 그 순간 시합은 끝나는 거야”

(『슬램덩크』, 안 감독님이 중3 시절 정대만에게 한 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스스로에게 되뇌는 말입니다.)

하정우의 인생책

뇌, 베르나르 베르베르

제게 뇌과학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두게 만든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동기부여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작가, 응급실에서 퇴근해 글을 쓰며 살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몸, 내 안의 우주』  
 등이 있다.



## 인생 문장이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말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니까.

- 『호밀밭의 파수꾼』 중

대학생 때 그 긴 소설이 이 문장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무슨 말이든 하면 누군가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한동안 여운이 가시지 않는 문장이었어요.

## 나에게 책이란?

평생의 동반자. 읽는다는 행위는 노력과 끈기를 들여서 타인의  
 생각을 추적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면서 살아야 하므로, 독서란 깊이 있는 삶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행위입니다.

## 남궁인의 인생책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표도로 도스토예프스키

오랜 연애를 마치고 읽기 시작했다. 완독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어서였다. 읽다가 정말 실연의 아픔을 잊어버리기 직전까지 갔다.  
 알고 보니 이 책은 그전까지 존재하던 모든 흥미로운 이야기의  
 형태를 모조리 다 섭렵한 마스터피스였다. 지금까지 인간이 쓴 가장  
 위대한 책임이 분명했다. 심지어 완독의 여운이 가시지 않을 무렵  
 헤어진 연인에게서도 연락이 오고야 말았다.

## 같이 읽기 좋은 책

### 몸, 내 안의 우주, 남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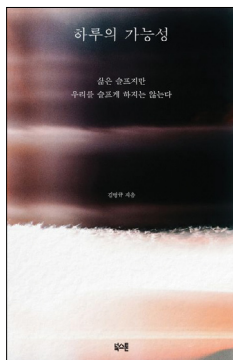


# 백경

소방관



현직 소방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래 구급차를 탑승니다.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아픔, 상실,  
죽음의 기억을 엮어 에세이집 『당신이 더 귀하다』를 썼습니다.  
백경은 세상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란 의미의 필명입니다.



## 작가님의 인생 노래가 있다면?

<달팽이> 패닉.

학창 시절에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고.' 그 노랫말이 특히 좋았어요. 덕분에 열심히 기어가다 보면 바다에 닿으리라 믿을 수 있었어요.

## 애정하는 독서 아이템을 1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최근에 폴리몰리 빈백을 구매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앉아서 책 보는 게 여간 곤욕이 아닌데, 빈백을 구매한 뒤론 독서 환경이 엄청나게 개선됐어요. 문제는 아이들도 자기를 독서할 때 호시탐탐 빈백을 노린다는 겁니다. 명절 보너스 들어오면 하나 더 구입할 예정이에요.

##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기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내일이요. 내일 아침에 소방서에서 무사히 퇴근해 가족과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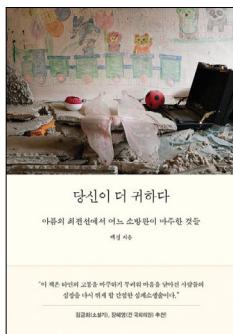
## 백경의 인생책

### 하루의 가능성, 김병규

'애써 봐야 먼지로 돌아갈 뿐'이란 생각에 깊이 매몰되었던 어느 날 서가를 방황하다 우연히 만난 책입니다. 중증 장애인이 된 형, 희귀암을 앓는 아버지, 그래서 낡아도 살아낼 수밖에 없는 노모. 저자의 하루는 매일 이들을 파멸로부터 건져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인생은 먼지 운운하던 저에게 치열한 하루의 가능성을 보여준 책입니다.

## 같이 읽기 좋은 책

당신이 더 귀하다, 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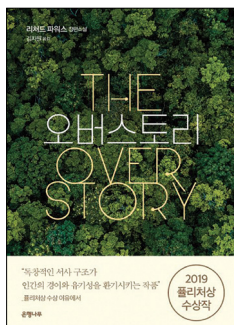


# 요한하리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사회과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뉴욕타임스』, 『로스앤젤레스타임스』, 『가디언』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약물 중독, 정신 건강, 주의력 결핍, 비만 치료제 등 현대 사회와 인간 본성에 관한 민감한 주제를 파고들어 독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탁월한 능력으로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탄생시켰다.



### 작가님에게 책이란?

책은 오랫동안 하나의 주제에 깊이 몰입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집중력과 공감, 깊은 사고는 쉽게 빼앗기지만, 책은 그 모든 소음을 밀어내고 맑은 사유의 자리를 마련해 줘요.

###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기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2014년 봄, 베트남 하노이의 작은 거리에서 사 먹은 사과 때문에 심각한 식중독에 걸려, 시골 병원에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의사에게 들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메스꺼움은 신호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려준다.”

이 말은 훗날 제가 『벌거벗은 정신력』을 쓸 때 큰 인사이트가 됐어요. 우울과 불안은 단순히 뇌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결핍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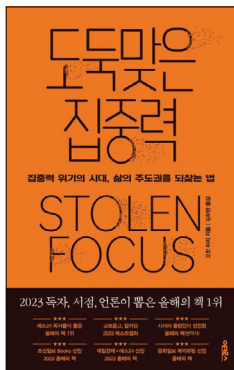
### 요한하리의 인생책

#### 오버스토리, 리처드 파워스

이 책은 내 세계관 자체를 바꿨다.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수백 년을 살아온 나무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다. 나무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아름답고, 진실하며, 필연적인 책이다.

### 같이 읽기 좋은 책

#### 도둑맞은 집중력, 요한하리





# 김금희

소설가



책을 읽고 쓰고 내면서 그 세계를 통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좋아한다.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너의 도큐먼트」가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장편소설 『경애의 마음』, 산문집 『사랑 밖의 모든 말들』 등이 있다. 신동엽문학상, 젊은작가상 대상, 현대문학상, 우현예술상, 김승옥문학상 대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했다.



작가님의 애정템 1가지를 소개해 주세요.

라미 사파리 딜라이트 볼펜. 라미 러버인 나는 만년필은 써왔어도 볼펜은 조금 가볍게 느껴져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볼펜은 적당한 중량감으로 손을 채워 쓰는 기쁨을 느끼게 해요.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왜 숨을 쉬어야 합니까?

인생 문장이 있으신가요?

“나는 인간이니 인간적인 것 모두가 낯설지 않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자서전 『희망』에서 재인용된 이 문장은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요.

김금희의 인생책

오춘실의 세계, 김효선

처음에는 저자에 대한 신뢰로 읽기 시작했다. 책을 소개하는 이로써의 김효선에 대한 매번의 감동 때문이었다. 하지만 점점 그것을 뛰어넘는 삶의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얼마나 한없이 넓어질 수 있는가를 깨달았다. 그 당시 나는 남해로 내려가 책을 읽던 나는 당장 어딘가를 향해 송고한 경배를 보내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같이 읽기 좋은 책

나의 플라 일지, 김금희



# 정대건

소설가



2020년 한경신춘문예에 장편소설 『GV 빌런 고태경』이 당선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펴낸 책으로 소설 『GV 빌런 고태경』, 『아이 틴더 유』, 『부오니시모, 나폴리』와 에세이 『나의 파란, 나폴리』가 있다.



책을 읽는 일에 대한 작가님의 평소 생각을 듣고 싶어요.

책을 읽는 일은 '정제된 느린 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느리고, 오래 고치고, 그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보게 되고 판단을 유보하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정제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는 만족감이 있어요. 바로 나온 생각을 의심하고, 검토하고, 퇴고한 끝에 나온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책을 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말을 정말 느리게 애정을 담아 고쳐서 소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평생 소통하고 싶습니다.

소설가로 사는 인생은 어떤 걸까요?

소설가로 사는 인생은 아주 느리게 독자와 대화 나누는 삶인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이 년, 삼 년, 오 년이 걸리더라도 책이라는 정제된 형태로 독자와 만나고 싶다는 욕망이 있고, 그것을 위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거죠. 영화와 비교하자면 더 개인적이고 내밀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인지 독자분들과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감각이 있어요. 작가의 가장 좋은 점은 모든 경험이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의미 없는 일이야말로 가장 견디기 어렵거든요.

정대건의 인생책

위대한 개츠비, F. 스콧 피츠제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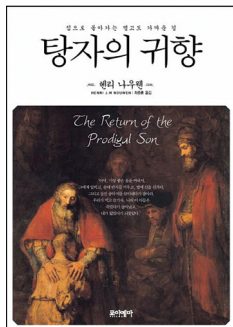
제가 문학에 빠지게 된 첫사랑 같은 작품이고, 그래서 잘 쓴 소설의 원형처럼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 정호승

시인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이 당선돼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슬픔이 기쁨에게』, 『서울의 예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포옹』,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슬픔이 택배로 왔다』, 『편의점에서 잠깐』 등이 있다. 소월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 인생 문장이 있으신가요?

“관계가 힘이 들 때 사랑을 선택하라.” 관계는 제 존재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속성은 힘들지 않을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마다 늘 미움과 증오를 선택해왔어요. 그러나 헨리 나우웬의 정신을 나타내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관계가 힘이 들 때 사랑을 선택하자”고 결심하고 늘 노력하게 됩니다.

###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본 콘텐츠가 있다면?

도서출판 ‘책이라는신화’에서 발간한 『인간의 악에게 묻는다』. 동국대에서 죽음심리학을 가르치는 김성규 교수가 쓴 책이에요. 인간의 다양한 심리 현상을 문학작품이나 영화에 적용시켜 인간의 선악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책을 통해 인간의 악을 이해하고 보다 선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 정호승의 인생책

#### 탕자의 귀향

『탕자의 귀향』은 용서에 관해 성찰하게 하는 책이다. 용서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자 화두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내 삶에 왜 용서의 문제가 가장 큰 화두이며, 어떻게 해야 용서의 마음을 지닐 수 있게 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 같이 읽기 좋은 책

편의점에서 잠깐, 정호승



# 이우혁

소설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설계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 때부터 아마추어 연극, 뮤지컬 등에 깊은 관심을 보여 13편 이상의 극에 연출, 출연을 했으며 하이텔 고전음악 동호회에서 한국 최초의 순수 아마추어 오페라 〈바스티앙과 바스티엔느〉를 각색, 연출하기도 했다. 1994년 『퇴마록』을 시작으로 1998년 『왜란종결자』, 『파이로 매니악』을 발표, 밀리언 셀러를 기록함으로써 일약 대중문학의 기린아로 떠올랐다.



책을 읽는 일에 대한 작가님의 평소 생각을 듣고 싶어요.

그건 일이 아니라 생활이자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웃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루는 24시간이고 수명은 100년이 채 안 됩니다. 책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능력과 노력을 망라한 문명의 결정체인데, 이를 등한시하는 건 스스로 퇴화하는 거죠. 항상 숨 쉬듯 가까이해야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 이우혁의 인생책

#### 핏빛 자오선, 코맥 매카시

코맥 매카시는 작가로서의 마인드를 롤모델로 삼는 분이기엔 꼽았습니다. 등단은 일찍 하셨는데, 거의 60대가 되실 때까지 아주 혹평만 받으셨죠. 초기 대표작인 『핏빛 자오선』 같은 경우 ‘철 지난 서부극 놀이 같다’는 식으로 아주 질 낮은 대중작가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곳곳이 나름의 세계를 유지하셔서 노년에 이르러 ‘현대의 헤밍웨이’라는 극찬도 받으시고 미국 문학의 대명사로 떠오르셨어요. 90대 때 ‘나는 아직도 전성기다’라며 작가정신의 화신 같은 말씀을 하신 게 제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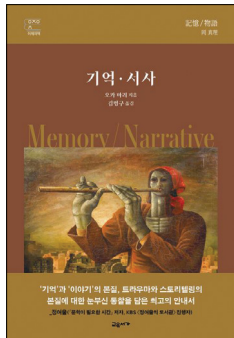


# 이주혜

소설가



읽고 쓰고 옮긴다. 2016년 창비신인소설상을 받으며 작품활동을 시작했고 『자두』, 『그 고양이 이름은 길다』, 『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영』, 『여름철 대삼각형』 등을 썼다.



## 인생 문장이 있으신가요?

“가능하면 낮선 방향으로”

현재가 불안하고 미래가 막막할 때 어둠 속에 웅크리고 소멸을 꿈꿔요. 그럴 때마다 단 1미터라도 낮선 방향으로 옮겨갈 때 저는 아주 조금 다른 사람이 되고 그만큼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소소하지만 사소하지는 않은 변신

## 작가님에게 책이란?

아침 점심 저녁, 혹은 봄 여름 가을 겨울

##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주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라는 동요를 믿었어요. 그러나 이 커다랗고 허방도 깊은 지구를 걸어서 한 바퀴 도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낙담을 메워준 존재가 바로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 지구를 몇 바퀴나 돌 수 있고 온 세상 어린이들과 어른들까지 다 만날 수 있다고 아직은 믿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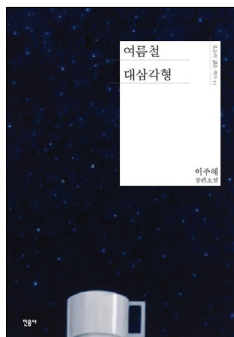
## 이주혜의 인생책

### 기억·서사, 오카마리

기억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습격하듯 나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할 때 기억의 근원적 폭력성을 다스리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사건의 기억을 타자와 공유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준 책

### 같이 읽기 좋은 책

여름철 대삼각형, 이주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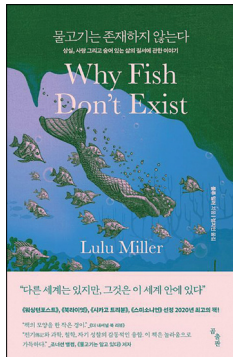


# 이지은

작가



한국과 영국에서 디자인과 그림을 공부했다. 쓰고 그린 책으로는 『종이 아빠』, 『할머니 엄마』, 『빨간 열매』가 있습니다. 그 외 그림책 『이 닭기 대장이야』, 『선이의 이불』 등에 그림을 그렸다.



책을 읽는 일에 대한 작가님의 평소 생각을 듣고 싶어요.

매일 해야 하는 운동 같다는 느낌입니다. 책을 읽지 않는 것과 읽는 것의 차이는, 마치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변화처럼 오직 스스로만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삶이 확장되고 몸과 정신의 균형 감각이 살아납니다. 운동의 기능을 직접 체험한 사람만 기꺼이 운동을 이어가듯 말입니다. 속근육이 채워졌을 때 삶이 한 단계 확장되는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귀찮고 게으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책 읽는 속도도 느리고 이해하는 속도도 더딤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하지 않았을 때 내 삶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을 알기에 멈출 수 없습니다.

### 인생 문장이 있다면?

왜냐하면 별들을 포기하면 우주를 얻게 되니까.

- 『물고기는 존재 하지 않는다』 룰루 밀러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는 나를, 나는 왜 이해할 수 없는가.

- 『웃는 남자』 황정은

### 이지은의 인생책

#### 물고기는 존재 하지 않는다, 룰루 밀러

평생을 어류 연구에 바친 생물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마치 알코올 유리병에 담긴 표본처럼 집요하게 파헤치고 그의 시간, 생태를 탐구하듯 써 내려간 책입니다. 한 인물을 이토록 깊이 추적한 작가의 집요함도 놀랍지만, 그녀가 끝내 도달해 발견한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에 인생을 걸 수밖에 없는지, 왜 그것들이 우리를 붙잡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간 자의 마지막을 독자들로 하여금 분류학자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룰루 밀러. 대단하고 경이롭습니다.

# 이꽃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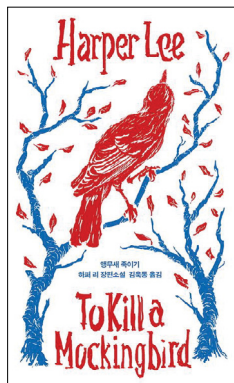
청소년 작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했다.

201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동화 「메두사의 후예」로 등단했다.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로 제8회 문학동네청소년문학상 대상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 청소년소설 『여름을 한 입 베어 물었더니』, 동화 『악당이 사는 집』 등이 있다.



### 작가로 사는 인생은 어떤 걸까요?

작가로 산다는 건 대체로 좋아요. 특히 자유로운 삶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유롭다는 건, 그만큼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또 글을 쓰는 일은 외로운 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그 마음을 온전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래서 글이나 생각 속에만 갇히지 않으려고 원고 하나를 완성하면 책과 거리를 두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뭐든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책과 책을 읽는 일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언제나 저에게 평안한 휴일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책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며 위로합니다. 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질문하게 만들지요. 불안한 마음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도 정답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으니깐요. 책은 그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너는 괜찮니? 너는 어머니?” 하면서요. 스스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 이꽃님의 인생책

####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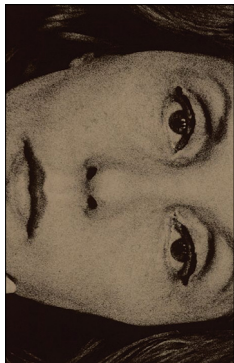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중 하나입니다. 인생책이 뭐냐고 물으면 마치 정답처럼 떠오르는 책이지요. 처음 『앵무새 죽이기』를 읽었을 때 느꼈던 감정은 특별함 그 자체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따뜻해졌거든요.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서 15년 동안 주기적으로 다시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 김선오

시인



2020년 『나이트 사커』출간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나이트 사커』, 『세트장』, 산문집 『미지를 위한 루바토』가 있다.



**책을 읽는 일에 대한 작가님의 평소 생각을 듣고 싶어요.**

책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이미지와 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은 오직 합의된 기호의 세계이고, 우리는 글자를 더듬으며 풍경과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 음악, 소음을 듣습니다. 저는 작가로서 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이미지와 소리를 전달하려 시도하지만 그것은 가닿기 전에 끝없이 미끄러집니다. 이 미끄러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결됩니다. 형체 없는 이미지로, 소리로, 이야기로 형성되는 읽기의 공동체가 저는 언제나 놀랍습니다. 마음과 형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또 그 믿음이 실현되는 공간이 책의 안팎이며, 그곳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시인의 인생은 어떤가요?**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할 것입니다. 다만 제 삶에 주어진 시간의 총량 중 많은 지분을 읽기와 쓰기에 할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합니다.

**김선오의 인생책**

**달갈과 닭, 클라리시 리스펙토르**

리스펙토르의 문장들은 언제나 날것으로 거기에 있고, 읽을 때마다 저라는 사람은 새롭게 감염되고 가공되고 편집됩니다.



# 최서영

크리에이터



아나운서에서 크리에이터로. 20년 가까이 숨가쁘게 달려온 일과 삶을 사랑하는 사람. 삶에 부딪히면 깨달은 것들을 잊고 싶지 않아 『잘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어른의 품위』라는 책도 썼다.



### 좋아하시는 문장은 어떤 책 속, 어떤 문장일까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미지는 유년에 형성된 경우가 많다. 우리는 그때보다 더 많이 성장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 중

선택 앞에서 나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두려워 망설였던 경험이 많아요.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보다 더 커진, 그래서 더 가볼 수 있는 나를 인지하게 된 문장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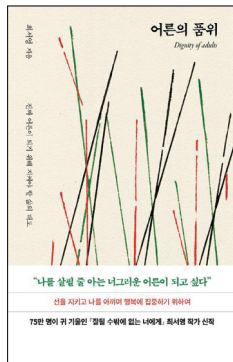
### 최서영의 인생책

####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마스다 미리

소소한 일상과 마음속 불안을 담담히 그려내는 것은 마스다 미리의 재능이다. 나이 들어가는 것, 관계 속의 어색함, 혼자만 뒤처지는 듯한 감정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와, 불완전한 채로 살아가도 괜찮다는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된다. 가볍지만 오래 곱씹게 되는 책.

### 같이 읽기 좋은 책

#### 어른의 품위, 최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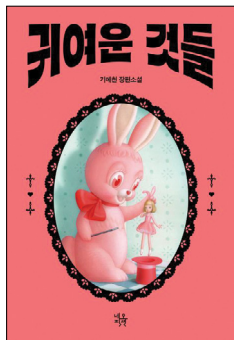


# 강지영

프리랜서 소설 작가



읽고 쓰는 일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어려서 몇 시간이고 서점에 서서 책을 읽던 질긴 습관이 제게 직업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시절엔 누구나 책을 읽고 편지를 주고받았지요. 여행을 갈 때도 책부터 챙겼고, 지금도 어딘가에 갇힌다면 책과 함께 떠날 겁니다. 책에 매료되어 시작한 모험이 15년, 여전히 읽고 쓰기는 제 최고의 취미이자 직업입니다.



### 인생 문장이 있다면?

“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한다.”

- 양귀자 『모순』

좋은 문장은 독자의 마음에 파장을 만듭니다. 저 문장은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는 문장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싶은 감정을 끌어내는 한 줄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양귀자의 팬이었고, 여전히 믿고 보는 많지 않은 작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양귀자의 책을 다 읽으면 그녀와 몇 시간 짧은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 듭니다.

### 작가님에게 책이란?

우물에 담긴 물 같습니다. 인간은 텅 빈 우물을 하나씩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우물을 채우는 한 바가지의 물이고요. 우물의 수심이 깊은 사람은 사유의 방법도 다를 겁니다. 저는 10~20대에 우물을 가득 채웠는데, 30~40대에 길어 쓰기만 하니 수심이 얕아졌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짬을 내 우물에 물을 담곤 합니다.

### 강지영의 인생책

#### 귀여운 것들, 기예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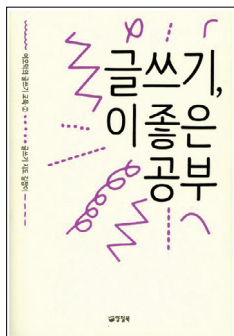
기예천의 『귀여운 것들』은 버려진 인형들이 제정신 아닌 여자의 집에서 탈출과 복수를 꾀하는 이야기입니다. 잔혹하면서도 사랑스럽고, 약자의 연대와 블랙 유머가 어우러집니다. 나약함 속 굳건한 힘을 보여주는, 무섭지만 따뜻하고 쓸쓸하지만 경쾌한 작품입니다.

# 최순나

대구 연암도서관 관장



3240일째, 맨발 걷기로 자연을 만나는 초등교사였으며 현재 학부모 교육 강사, 대한민국 맨발 학교 연수원장, 연암도서관 관장. 최보결의 춤의 학교 연구원, 『1학년이 쓴 1학년 가이드북』의 저자로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학부모 교육을 “나의 독립운동”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기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첫 아이를 만난 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얻은 느낌이었어요.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내 인생은 하나의 설계도로 그려져야 하지만 책은 다양한 삶을, 생각을 만날 수 있으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넓고 깊은 만남을 위해. 적어도 책장을 넘기는 수고로움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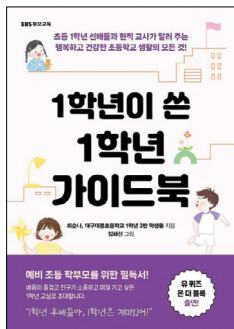
최순나의 인생책

글쓰기, 이 좋은 공부, 이오덕

1987년 5월 선생님을 꿈꾸며 살아가는 교육대학생일 때 만난 책, 글쓰기 교육이란 말을 처음 쓰게 된 책, 이후 36년간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 글의 첫 번째 독자로 살게 해준 책, 10여권의 아이들 책을 출판하고 교원작가가 될 수 있게 한 책,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글쓰기를 실천하는 우리들의 위대한 스승 이오덕 선생님을 만난 책!

같이 읽기 좋은 책

1학년이 쓴 1학년 가이드북, 최순나





# 고르는 사람

CURATORS





# PDF SEOUL

## 디렉터 이승현

Location.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32길 16



이태원에 위치한 'PDF SEOUL'이라는 아트북 편집샵을 운영 중입니다. 제가 직접 큐레이팅한 사진/디자인/패션 관련된 해외 서적을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촬영 대관 및 전시 그리고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하는 멀티숍입니다.



### 인생 문장이 있다면?

문장이라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을 살아가면서 항상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살면서 항상 마주치는 선택지 중에서 신중하게 고르는 선택이 내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선택 총합이다."이란 말을 너무 공감하고 있어요.



### 이승현의 인생책

#### 책은 도끼다, 박웅현

'책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얼어붙은 감수성을 깨는 도끼다.' 독서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감각과 생각을 깨우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는 말씀이 크게 와닿았어요. 많이 읽기보다 깊이 읽으며, 한 문장 한 문장에서 삶의 울림과 통찰을 발견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이 책을 추천합니다.

# 로우박스

## 대표 배인영

Location. 서울 마포구 포은로 56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독립서점. 저희 서점에 있는 책은 제가 일일이 큐레이션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좋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책을 고르고,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인생 문장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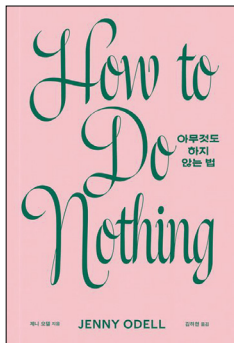
“상품이 이윤을 내는 쪽으로 이동한다면, 선물은 어디로 갈까?  
선물은 비어 있는 곳을 향한다. 원을 그리며 돌다가, 가장 오랫동안  
빈손인 사람에게로 향한다.”

제가 받은 선물을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 이승현의 인생책

####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 제니 오델

평생을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경주마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책방 사장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업을 굴러 갔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은 제가 불안 없이 현재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책입니다.



# 책바 대표 정인성

Location. 서울 마포구 포은로 90



책바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칵테일과 위스키를 마실 수 있는  
 바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까지 여는 심야서점입니다.  
 얼마 전 10주년을 맞이했으며, 200종류 이상의 술과 1,000권  
 이상의 책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낮부터 엽니다. 대표 정인성은 소설 『소설 한 잔』과  
 책바 운영기를 담은 책 『밤에 일하고 낮에 쉽니다』를 썼으며,  
 문화예술과 술을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다양한 브랜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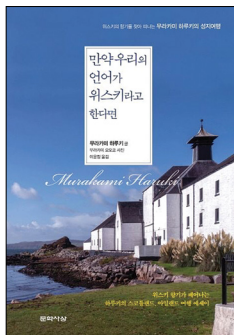
### 인생 문장이 있다면?

역시자지, 책바의 고객부터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을  
 대하면서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 정인성의 인생책

#### 만약 우리의 언어가 위스키라고 한다면, 무라카미 하루키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공간을 만들고 싶어 회사를 그만뒀지만, 점점  
 기대보다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때 친구가 선물해 준 책입니다.  
 지금 읽어도 두근거리는 서문을 읽고는, 위스키의 성지로 불리는  
 스코틀랜드로 향하는 티켓을 끊었습니다. 위스키 증류소 투어를  
 다니며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고, 단단한 마음으로 책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 번역가의 서재

## 대표 박선행

Location. 서울 마포구 동교로17길 67



번역가로 활동하며 마포구 동네서점 번역가의 서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역가의 서재는 박선형 번역가가 직접 읽고 고른 좋은 번역서를 비치한 국내 유일의 서점입니다. 책을 판매하는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영감을 주고 취향을 나누는 아지트와 같은 공간을 만들고자 2018년 5월 5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 인스타그램 @tlbseoul



###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기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일기일화’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기고 싶은 순간은 딱히 없지만, 매일 매 순간이 소중한합니다.

### 박선형의 인생책

#### 그저 여기에 와비사비, 레너드 코렌

저에게 이 책은 삶의 가치관을 바꾼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일상 속에서 불완전하고 비 영속적인 것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고, 미적 감수성이 새롭게 깨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곁에 두고 자주 꺼내 읽고 싶은 인생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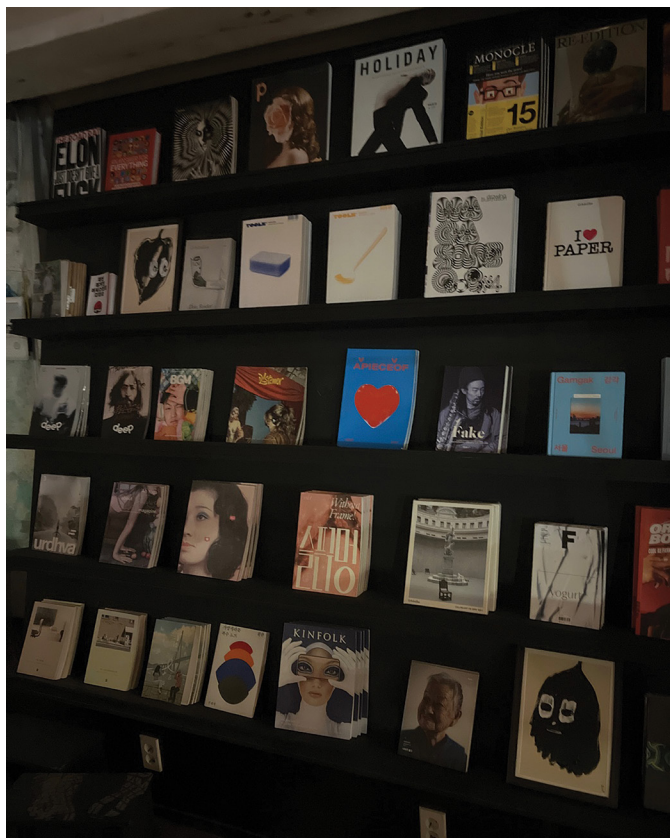




# 종이잡지클럽

## 대표 김민성

Location.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8길 32-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17



전 세계 잡지를 다루는 서울과 제주의 잡지 전문 공간  
종이잡지클럽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 가장 재밌게 본 콘텐츠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리처드 브라우티건의 소설들을 다시 읽고 있어요. 그의 소설을 읽다 보면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들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읽고 있으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고 즐겁습니다.

### 김민성의 인생책

#### 매거진 B 60호 Monocle, 매거진 B 편집부

창업 전에 『매거진 B 60호(모노클 편)』를 외우듯 읽으며 콘텐츠의 힘과 미디어의 진화를 고민했다. 그러나 8년 뒤 지금을 돌아보니 그 고민 대부분이 부질없었다. 결국 배운 건 두 가지다. 남이 떠드는 추천에 휘둘리지 말 것, 그리고 멋진 글귀에 쉽게 홀리지 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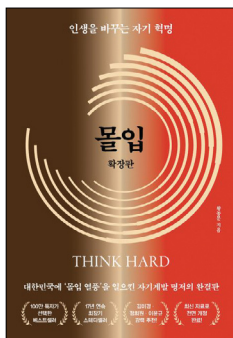


# 비주얼 콜렉트 디렉터 Sebastian

Location. 서울 성동구 연무장13길 3



비주얼 콜렉트는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독자들이 예술과 문화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로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분야에서 선순환 구조로 인해 확장되는 긍정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향합니다.



## Sebastian의 인생책

### 몰입, 황농문

이 책은 뇌를 통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통찰을 가능하게 했고,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히는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 그리고 마음의 태도와 상황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책 『몰입』은 '스스로를 더 나음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누군가 이 책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단단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 비화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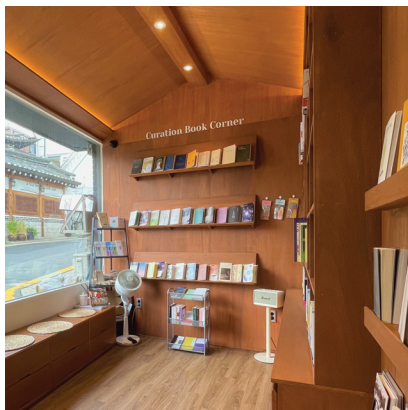
## 대표 장혜민

Location.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153





종로 원서동과 계동을 잇는 길목에서 7년째 작은 책방 비화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유의 세계로 안내해 줄 다양한 분야의 신간과 그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더딘 속도로 잊히길 바라는 책방지기의 최애 도서들로 서가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 @bihwarim\_book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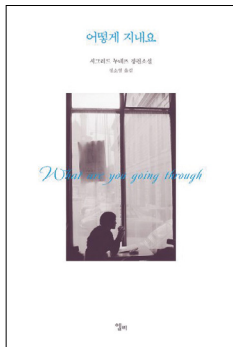
###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삶을 입체적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성찰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믿어요. 성찰적 사고는 자기 인식과 이해의 내적 거리를 알맞게 조절할 수 있을 때 그 밀도가 높아지는데 저는 다양한 경험과 독서가 이 거리 감각을 길러준다고 생각해요.

### 장혜민의 인생책

#### 어떻게 지내요, 시그리드 누네즈

책방에 들어온 신간을 살펴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소설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몇 장 넘기던 중 도저히 멈출 수 없어 그대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소설이지만 읽다 보면 '정말 소설일까?' 싶은 독특한 형식을 띠고 있는데, 바로 그 점이 그만의 고유한 개성과 매력을 보여주죠. 특히 작가의 시선에서 전해지는 이성적인 다정함과 건조한 유머를 결들인 통찰을 사랑합니다.



# 해호미

## 대표 이흥기, 고은별

Location.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308-2



청주에서 카페와 독립서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해호미라고 합니다. 해호미는 바다와 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식물이 해를 보며 숨을 쉬듯 사람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운영 중입니다. 현재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만, 200자 안에 다 담을 수 없어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웃음)



### 인생 문장이 있으신가요?

열차는 개가 짖는다고 멈추지 않는다.

'안돼'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 이흥기, 고은별의 인생책

그곳은 멀고 나는 여기에 있지만, 하정

혼자 제주도 여행을 떠났을 때였어요. 답답한 현실과 사람이 싫어 무작정 떠났던 여행 중 '어떤 바람'이라는 작은 독립서점에서 눈길이가서 구매했던 책입니다. 제주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좋은지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이 감정들을 나열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만났던 한 문장이 이 책 속에 있어요.





# 마리서사 대표 임현주

Location. 전북 군산시 구영5길 21-26



군산 시간여행 마을에서 '마리서사'라는 작은 책방을 운영합니다. 100년이 넘는 일본식 주택을 가정집 서재처럼 정돈하여 문학, 예술, 사회, 환경 분야의 책을 판매합니다. 서점 앞 화단에는 상추와 딸기, 베고니아가 자라며 그 사이로 길고양이들이 머무는 유유했던 공간입니다.



### 인생 문장이 있다면?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끝이 오기도 전에 우리가 끝을 이야기해야 하나요? 어떤 것이 존재하는 동안만큼이라도 그냥 좋아하면 안 되나요?

- 『소프루』중

“기억하는 것이 곧 저항이자 삶이다”라고 속삭이는 이 책을 책방에서 읽을 때 평온을 느껴요.



### 임현주의 인생책

#### 적산가옥의 유령, 조예은

책방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책을 꼽았습니다.

『적산가옥의 유령』은 군산 출신 조예은 작가가 군산의 국가 등록 문화유산 히로쓰 가옥을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이런 이유로 군산 특별판이 제작되어 군산에서만 판매하고 있어요. 오직 이 책을 위해 군산에 방문하는 독자들을 만나며, 책이 이끄는 연결을 즐겁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 윤슬서림 대표 현구

Location. 강원 강릉시 임영로 138



독립서점을 운영한 지는 3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서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책을 사랑하지도 않고, 명확한 목표가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 시작한 서점이었지만, 아무거나 다해야만 하던 시기를 거쳐서 지금은 이것저것 해보기도 하는 서점이 되었습니다.



### 인생 영화를 1편을 추천한다면?

김미영 감독의 <절해고도>. 누구에게나 벼랑 끝에 내몰렸던 순간들이 있다. 언제나 내가 바랐던 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아픈 사람의 이야기가 덜 아픈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것'(이제니, 『새벽과 음악』, 시간의흐름)

### 현구의 인생책

#### 이슬아 수필집, 이슬아

서점을 열게 된 이유가 아닌 서점을 열 수 있었던 이유. 이 책 덕분에 독서의 재미를 알았다. 모든 관계를 저버리고 도망쳤을 때도, 아무도 오지 않는 서점을 지킬 때도 끝내 삶을 저버리고 싶을 때도 이 책을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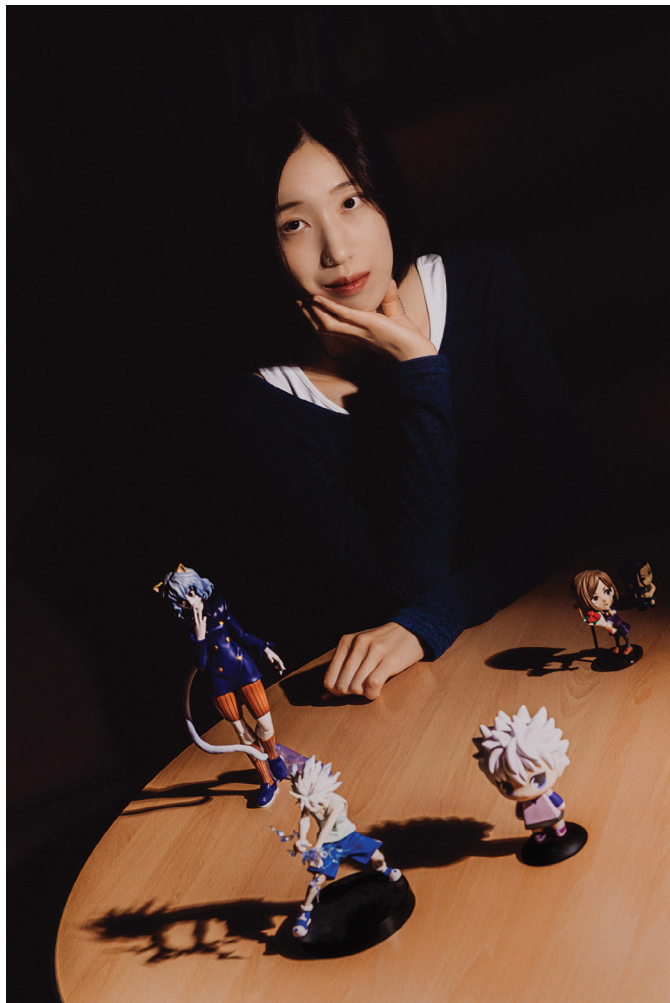
# 만드는 사람

CREATORS



# 김해인

만화 편집자



만화 편집자이다. 일본의 만화가 와야마 야마를 처음 국내에 소개했다. 문제적 신인 민지환의 단편 만화집 『허무의 기록』, 유쾌한 성인 웹툰과 고약한 블랙코미디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보유한 안나래, 김달, 스미마의 앤솔러지 『도덕적 해이』, 하나의 세계관 아래 소설과 만화가 절묘하게 연결되는 박서련, 정영龙的 창작집 『제사를 부탁해』 등 출판 만화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는 기획을 선보이고 있다.

/ 인스타그램 @\_tollelege\_



### 편집자로 사는 인생은 어떤 걸까요?

최근에 친구와 서점에 갔는데 어떤 책을 보더니 무슨 종인지 궁금하다 길래 “삼화제지 레자크91, 200g”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친구가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번 써본 종이는 웬만하면 다 기억하고 내지 종류를 비교적 저렴한 순서대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4 혹은 8로 떨어지는 배수의 셈이 빨라지고, 이 말풍선과 저 말풍선의 대사 행간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잡는, 정말로 세상을 사는 데 하등 관계없는 일들에 능해집니다. 가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력이 투여되어 나온 것이 한 손으로 거뜬히 들 수 있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기묘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과정을 거쳐 도착한 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비로우며 감사한 일인지 더 구체적으로 감각하고 싶습니다.

### 김해인의 인생책

#### 피의 흔적, Shuzo OSHIMI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도 힘들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를 괴롭히고 붙잡아둘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메시지를 가장 완벽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겪고도 언젠가 어느 날에 그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공원에 잠시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아무렇지 않은 하루가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만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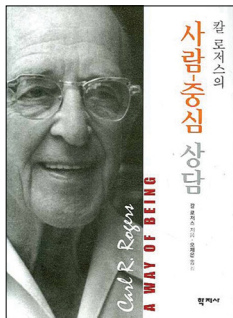


# 수수진

예술가



저는 시각 예술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삼성전자·네이버·무인양품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며 예술성과  
상업성의 조화를 모색하고, 동시대적 개념을 탐구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은 것이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단순한 형태에 사랑·우정·고독 등의 개념을 담아내며,  
개인전 '사랑이 넘치는 예술 상점'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 인스타그램 @\_soosoojin



### 인생 문장이 있으신가요?

나는 나의 모든 충동을 좋아합니다. 나는 모든 감정, 생각, 충동을  
자신을 풍성하게 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 칼 로저스 『사람 중심 상담』 중

상담 선생님께서 '감정을 돌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여쭙봤는데, 감정을 돌본다는 건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거나  
덮어두지 않고 충분히 느끼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메시지가 감정을 돌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를  
삶에 반영하는 일은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위의 문장을  
매일 새기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기고 싶은 순간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 날을 기점으로 다시금  
스스로를 새로운 시선 안에서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수수진의 인생책

#### 사람 중심 상담, 칼 로저스

우울증 진단을 받고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칼 로저스의 『사람 중심  
상담』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A way of being* 입니다.  
즉,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말하는 책입니다. 인간은 긍정,  
부정적인 모든 감정을 존중함으로 존재해야만 더욱 진실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존재적 태도를 알려주는  
지침서 같은 책입니다.

# NUA

아트 디렉터



그저 미술이 좋아서 인생의 절반 이상의 시간 동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메시지를 안고 세상 속으로 확장하는 것에 큰 즐거움을 느끼며 부지런한 그림 노동자로 살고 있으며,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프라이빗 도미토리 CRAYON CORNER를 운영 중입니다. 예술·출판·아트디렉팅 등의 세계를 쫓으며 어딘가에 있을 더 즐거운 세계를 찾아 무한히 향해 중입니다.

/ 인스타그램 @libere\_nuage, @hello\_crayoncorner



### 인생 문장이 있으신가요?

창작의 장벽에 부딪힌 적 있냐는 질문에는 웃으면서 “그런 적 없다”고 대답했다. “장벽에 부딪힌다면 글을 충분히 읽지 않았 때문이에요.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요.”

- 니키 조반니 인터뷰 중

내 안이 텅 비어 할 이야기가 없는 것을 ‘창작의 장벽’이라 핑계 대는 태도를 선명하게 비추는 시인이자 운동가 니키 조반니의 인터뷰 글이에요. 직업적 특성 때문인지 무척 뜨끔했습니다. 핑계 대지 않고 좋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 NUA의 인생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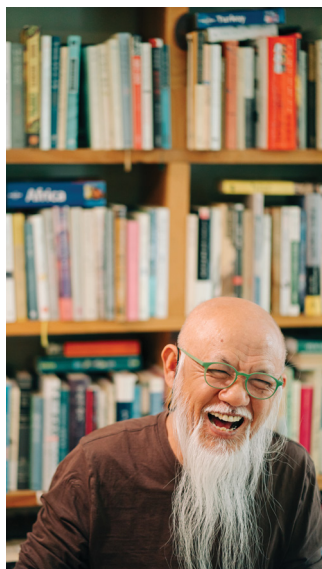
####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황선우, 김훈비

제목이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는데 어떻게 집어 들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림작가, 그러니까 프리랜서의 삶을 유지하면서 스스로를 다그치는 데에 이골이 난 상태에서 번아웃을 견디고, 힘들지만 거절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서로 연대하는 자잘한 공감대가 저를 크게 건드렸습니다. 에필로그의 마지막 문장이 이 책을 열렬히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하겠지만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하지는 않는 것’을 실현하는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그중 ‘함께 나눠서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꼭 물리적인 몫의 나눔이 아니더라도 함께 꾸준히 일상을, 웃음을, 마음을 나누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잊지 않으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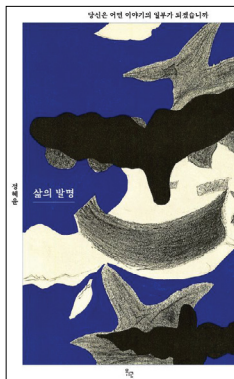
# 모티프원 이안수, 이나리

북스테이



설립자 이안수는 지난 20여년간 헤이리의 북스테이 '모티프원'을 짓고 여행객을 맞고 대화했다. 3년 전 한국을 떠나 은퇴한 아내와 함께 10년 동안 나라 밖을 살아보는 삶을 실험 중이다. 이 순례길에서 만나는 인연과 문화를 나누는 글을 쓰고 있다.  
/ 인스타그램 @motif.1\_travellog

호스트 이나리는 배우이면서 창작자, 교육자, 호스트 등 여러 가지를 함께하며 아슬아슬하게 생계를 도모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은 소통의 각기 다른 방식이며 존재의 확장이다. 그 모두를 수렴하는 것이 또한 연기이다. 모티프원에서 게스트와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나누며 좀 더 이완되면서 지속가능한 삶을 함께 찾아가고 있다.  
/ 인스타그램 @naa.ri



##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이안수) 단 한 가지의 선택만이 가능한 유한한 일회성의 삶에 마치 여러 생을 살아 보는 욕망을 실현해 주지요.

##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기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이안수) 지금의 내 아내가 된 여성이 45년 전 내 방의 창문 아래에서 노크했던 순간. 내 삶을 그 순간의 전과 그 순간의 후로 나눈 운명의 노크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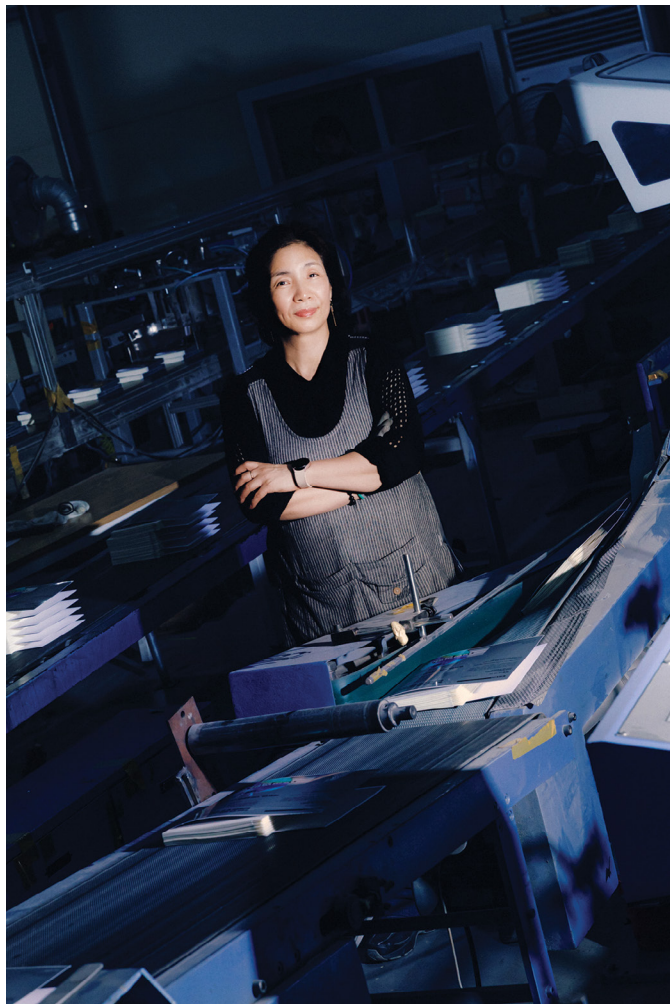
## 이나리의 인생책

### 삶의 발명, 정혜운

산책길에서 들꽃과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알아채듯 좋은 이야기를 알아보면 내일의 내가 더 멀리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 조각들은 내 삶의 빈 공간을 채워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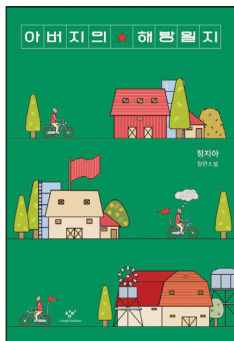
# 김기남

인쇄소 기장





20년 이상 책을 만든 'J&D 바인텍' 인쇄 기장입니다.



**‘책과 책을 읽는 일’에 대한 기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책을 만드는 일을 해온 지 어느덧 18년이 지났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책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책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결국 제가 만드는 책에도 녹아들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게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일은 제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과 일 모두를 비추는 거울이자 길이 되고 있습니다.

책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넓히고 시야를 깊게 하며, 때로는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고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일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지혜롭게 이끌어 가는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믿습니다.

### 김기남의 인생책

####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이 작품은 개인의 삶과 시대의 아픔이 교차하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족과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무게를 깊이 느끼게 해주었고,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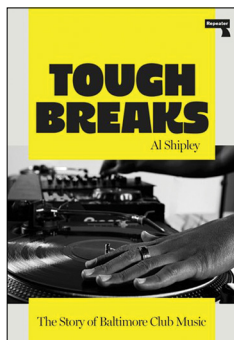


# DJ FUNNY



전자음악 독립레이블 '삼보레코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생소한 전자, 댄스 음반을 발매하고 있으며 도서, 의류 등도 기획/제작합니다. 처음에는 DJ 생활을 하다가 '내 트랙도 댄스 플로어에서 흘러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작곡을 배워 앨범을 발매하고 나중에는 레이블을 만들어서 국내외의 좋은 아티스트들을 소개합니다.



## DJ FUNNY의 인생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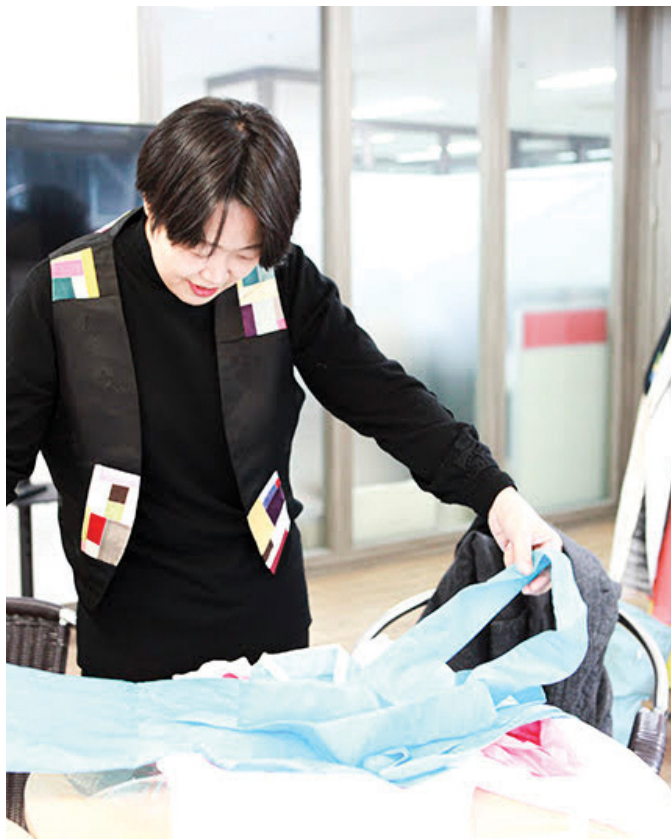
### Tough Breaks, Al Shipley

댄스음악의 장르 이름은 동네 이름이 앞에 붙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에게 생소한 동네인 Baltimore 이름이 붙은 장르가 있습니다. 여행지가 아니고 치안이 좋지 않아서 주변에 간 사람들은 잘 없는데, 그 동네에서 생겨난 Baltimore Breaks/ Club의 원류를 찾는 진귀한 책입니다.



# 로즈문

한복작가



40대 전통섬유공예가로 세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어 시작한 바느질이 너무 확대되어 스스로 당황하는 중입니다. 늘 정신없이 바쁜 사람 이라고들 주변에서 말하지만, 정신은 차리고 바쁘고 싶은 부캐부자입니다.



##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기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아이들을 태우고 나들이를 떠나던 어느 하루. 그저 살아있음에 깔깔 웃으며 함께 음악을 크게 틀고 따라 부르며 오늘 하루도 무탈히 살아냈구나. 그런 하루면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 로즈문의 인생책

### 칼의 노래, 김훈

삶과 죽음의 기로를 넘나들며 주변이 흑백이던 나의 이십 대 초반. 이 시기에 만난 이 작품은 내가 삶의 주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특히, 매일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깨달음을 준 메시지 덕분에 『칼의 노래』는 나의 인생책으로 자리 잡았다.





# 읽는 사람

READERS



**박현진 (공고 WHO 인사과)****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태수, 페이지2북스**

조용한 행복은 비싸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엄마가 좋아하는 꽃 2만 원, 사랑하는 이들에게  
커피 한 잔. 비싸지 않은 행복을 자주 사고  
싶어지게 한 책이다.

**조향미 (간호사)****밤 열한 시, 황경신, 소담출판사**

신규 간호사로 바쁜 하루를 보내던 때 『밤 열한 시』의 일부가 적힌 메모를 봤다. 우연히 만난 시  
구절이 와닿아 사본 책은 몇 번이나 필사할 만큼  
아끼는 글이 됐다.

**김윤희 (마케터)****모순, 양귀자, 쓰다**

현실에 안주하며 안정감을 느끼는 동시에  
회의감과 무력감에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누구나 겪는 감정임을 알려주며 큰 위로를  
건네는 책입니다.

**김현우 (프리랜서)****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클레이하우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치니 깊은 무력감이  
찾아왔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문제였던 걸까? 모두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책은  
인생의 소중함을 되찾아줬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현지 (승무원)****여행의 기술, 알랭 드 보통, 청미래**

목적지만 찍고 가는 게 여행이라 생각했는데, 알랭  
드 보통은 여행이 단순히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닌 여러 감정과 생각들을 돕는 과정을  
알려줬습니다.

**김수진 선생님과  
대구 강림초 한식햇반  
학생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생각으로 교육 연구 SNS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정한 말과 글들로 교실의 여러 풍경을 보입니다.  
사부작사부작 도전하며 다양한 제 모습을  
찾아가고 발견하는 삶을 살아요.

- 참여 학생: 강연우, 권도영, 김동준, 김서울,  
김선준, 김소윤, 김시후, 김은유, 김준엽, 손가은,  
손건영, 손예린, 신서영, 신아정, 윤서연, 이하준,  
이효민, 임승규, 임시울, 정수빈, 정예슬, 정재백,  
김하랑, 이시윤

**김수진 (선생님)**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알랭 드 보통,  
은행나무**

우리는 모두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도 않다.  
하지만 기꺼이 서로의 차이를 유쾌하게 털어놓고  
풀어갈 수 있다면, 그 어떤 사랑이든 함께 완성해  
나갈 수 있다.

**한식햇반 학생들**

**웡카, 시빌 파운더, 시공주니어**

주인공 웡카는 포기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최고의 초콜릿 메이커가 되는데, 나도  
앞으로 끝없는 노력을 통해 다음 수학 단원에서  
100점을 맞고 싶다.

**빨간깃털, 벤 키친, 도미솔**

친구들은 다 놀면서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탈무드, 이다온, 대일출판사**

한 장사꾼이 외쳤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 팝니다!" 사람들이 물리자 말했습니다.  
"참된 인생을 사는 비결은 허를 조심해서 쓰는  
것뿐이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름과 가을 사이, 박슬기, 북멘토**

친구와 싸웠을 때 이 책 덕분에 친구와 화해해서  
인생 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과하기 싫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  
있으니 먼저 용기를 내보세요.



## 한식해반 학생들

### 슈퍼 토끼, 유설화, 책읽는곰

동생이 게임을 많이 피우는데 이 책을 통해 변화돼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 어쩌다 좋은 일이 생길지도, 요시타케 신스케, 주니어김영사

사람들의 걱정, 고민거리, 슬픈 일을 짧은 이야기로 바꾸어 감정을 덜어주는 책이에요.

### 슈퍼 거북, 유설화, 책읽는곰

3학년 때 활동이 느렸던 저는 이 책을 읽고 운동을 많이 해서 4학년쯤 빨라졌어요.

### 근대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배성호, 빨간펜

안중근이 이토히로부미에게 총을 쏘는 장면을 보고 저도 안중근처럼 용감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자고 다짐했습니다.

### 인문의 어깨에 올라 경영을 바라보다, 최성욱 외, 리케이온

작은 환경에는 작게 크고 큰 환경에서는 크게 크는 잉어 코이 이야기와 다른 경영책인 장자 이야기도 있어 재미있게 경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여름이 반짝, 김수빈, 문학동네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세상을 떠난 유하의 목소리가 비눗방울 속에서 들려오는 부분이다. 돌아가신 증조할머니 목소리를 듣고 싶어 공감되었다.

### 채사장의 지대넓얏, 채사장, 돌핀북

중력이나 빛같이 어려운 것도 그림과 쉬운 단어로 풀어 주어 이해가 잘 되고 재미있었습니다. 이 책 덕분에 과학이 어렵다는 생각을 깨고 똑똑해진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팔빙수 눈사람 평평, 나은, 창비**

윤주 품에 안긴 망지가 네 발을 축 늘어뜨린 채 움직이지 못하고, 이별하는 장면은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고, 있을 때 잘하자'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수상한 아이가 전학 왔다!, 제니 롭슨,  
뜨인돌어린이**

이야기 속 전학생이 형들에게 맞을 때 용감하게 구해 준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스릴 넘쳐서, 인생 처음으로 "하루야 빨리 가라" 하며 잠들 정도로 다음 내용이 기대되었습니다.

**지우개 따먹기 법칙, 유순희, 반달서재**

"지우개 같은 작은 물품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마음에 꼭 박혔어요. 책 속에 여러 개의 지우개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한 번씩 써 주는 장면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고민을 대신 전해 드립니다, 김대조, 주니어김영사**

이 책을 읽으며 제 상황이 왕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주인공 은우처럼 저도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왜 항상 나를 빼고 놀았나?"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사과했고, 화해했어요.

**달러그트 꿈 백화점, 이미예, 팩토리나인**

처음 소설책을 읽어 보았는데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나도 상처 받지 않고 친구도 상처 받지 않는  
말하기 연습, 강승임, 위즈덤하우스**

이 책을 통해 내 마음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자신감이 올라갔고, 동생이 까불면 더 이상 봐주지 않고 맞서 다시는 까불지 않게 말합니다.

**아무거나 문방구, 정은정, 창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게임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축구 게임을 덜 하게 됐어요.

## 한식햇반 학생들

### 1학년은 처음이야, 이신영, 창비

저는 1학년 때 이렇게 울지 않았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기분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 크리스마스 날, 하늘 마을에서 온 택배, 김경미, 슈크림북

친구를 배려한다는 것은 다정한 말투로 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실수로 부딪치더라도 “괜찮아”라고 다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 긴긴밤, 루리, 문학동네

친구의 부족한 점을 단점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이 친구는 이 점이 특별하네?’ 장점으로 생각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친구를 만들려고 노력해 보세요.

### 바다로 간 빨대, 김영미, 아이앤북

이 책을 읽은 뒤 월요일이 좋아지게 되었어요. 또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약한 사람을 지켜주며, 잘 웃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무뎠던 저를 맑은 사람으로 바꿔 준 고마운 책이에요.

### 달콤 짭짤 코파추 1: 바람마을의 생태계를 지켜라, 다영, 창비

과학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해요. 내용 속에 과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다 보면 과학에 대한 흥미도 느낄 수 있어요.

### 달샤베트, 백희나, 스토리보울

정전이 되었을 때 반장 할머니가 달이 녹은 것을 샤베트로 만들어 나누어 주셨는데 작은 베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분리수거를 잘하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송성민 (마작카페 대표)****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리히 프롬, 휴머니스트**

‘나는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다르지?’ 라던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지?’라는 질문들에 답을 엿보여준 책. 막연히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답답함을 느낄 때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줬다.

**서산 꿈의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2004년부터 시골 대안학교에서 독서 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이 단순하지만 위대한 깨달음을 수업과 블로그를 통해 나누며 살고 있다.

- 참여학생: 위로하는, 임마누엘, 이서하, 이루다, 김상현, 강서현, 고예원, 다온 / 선생님: 넘치는, 해피맨

**넘치는 (선생님)****땅콩박사, 로렌스 엘리엇, 대한기독교서회**

대학 졸업을 앞두고 막막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열심히 살았지만, 막연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당시 머리를 식힐 겸 ‘땅콩에도 박사가 있나?’라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책은 나의 인생을 뒤흔들었다. 이 책을 통해 만들어진 좌우명,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해피맨 (선생님)****언어, 안도현, 문학동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책을 자주 곱씹게 되는데, 참 넓고 깊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합니다. 인생의 비밀을 들여다보게 한 책입니다.

**꿈의학교 학생들****인생, 연기처럼, 이시현, 좋은땅**

뮤지컬과 나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쓰여 있는 이 책은 너무 나랑 닮고, 이런 글을 쓴 작가가 멋있어 보였다.

**언어의 온도, 이기주, 말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페이지를 넘겼는지 너털너털해진 책의 표지와 그 표지에 쓰여 있는 ‘말과 글에는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라는 문장이 내 눈을 사로잡아 읽게 된 책

## 꿈의학교 학생들

###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이철환, 자음과모음

가식적인 사람들을 싫어하는 내가 가식적으로  
변해가는 스스로가 싫어 읽게 된 책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 읽게  
되었습니다.

### 위로를 주는 빵집, 오렌지 베이커리, 키티 테이트, 월북

감정을 선물해 주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참인 명제처럼 이 공간에 가면 느낄 수  
있는 보장된 즐거움과 슬픔을 소모할 수 있는 곳.

### 자기 앞의 생, 에밀 아자르, 문학동네

나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표지에 적힌 '열네 살 모모의  
시각에서...'라는 말이 이 책을 읽게 했던 것 같다.

### 거짓말하는 착한사람들, 댄 애리얼리, 청림출판

저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 속에 가려진 연약한 나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 박구연 (학예사)

### 정지용 시집, 정지용, 열린책들

납북자 관련 박물관에 근무하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저서를 접합니다. 원본 그대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하지요. 최근 정지용 시인의 납북  
사실을 알고 읽으니, 구절마다 더 깊은 아픔이  
전해집니다.

## 이원주 (주부)

###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신지, 잠비

아이 둘의 학업에 올인하며 둘째를 대학에 보내고  
이젠 내 시간을 온전히 맞을 생각에 들떠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순전히 제목에 꽂혀 읽게  
됐어요.

**최인헌 (청소년 지도사)****가르칠 수 있는 용기, 파커 J. 파머, 한문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때, 읽기 시작했고,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 삶을 함께하며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오영환 (소방관)****빛살무늬토기의 추억, 김훈, 문학동네**

90년대 처참하고 열악했던 당시 화재 현장 소방관들의 사투, 이제는 사진으로도 찾기 힘든 과거 진압, 구조 현장의 묘사만으로도 시대적 기록물이라고 평가되며 깊은 영감을 줬다.

**이부연 (간호사)****오역하는 말들, 황석희, 북다**

25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며 늘 하는 일예, 집에서는 두 고등학생의 엄마와 아내인 워킹맘으로 지쳐있을 때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내 입장에서만 오역하고 있는 말들이 많은 걸 알게 됐다.

**이삭주나셀라 (어린이)****물 아저씨는 변신쟁이, 아고스티노 트라이니, 예림당**

엄마가 사줘서 자기 전에 항상 읽는데 중간중간 물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재미있고, 물레방아가 있는 게 재미있어요.

**이하영 (승무원)****흔들려야 무너지지 않는다, 가토 다이조, 밀리언서재**

곧 30대를 바라보며 잘 살아오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온전히 나의 어린 시절과 20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다.

**이지은 (간호사)****얼 나이팅게일 위대한 성공의 시작, 얼 나이팅게일, 더퀘스트**

3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도 그때와 다르지 않은 내 모습, 한국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슬펐다. 이 책을 읽고 조금은 내 멋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용기내 본다.

**김희수 (요리학교 선생님)****예민함이라는 무기, 롤프 젤린, 나무생각**

중고 서점 심리 서적 칸에서 숨겨진 보석 같이 발견한 책입니다. HSP 'Highly Sensitive Person'들을 위한 책인데 '예민함'은 특별한 재능이라고 말해주는 작가의 언어에 매료됐어요.

**쇼웨이 (대학생)****눈먼 암살자, 마거릿 애트우드, 민음사**

유려한 문장과 복잡하고 아름답게 쌓은 층위, 그리고 강렬한 메시지에 반해서 애트우드라는 작가를 머릿속에 각인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애트우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됐다.

**김재호 (엔지니어)****모모, 미하엘 엔데, 비룡소**

'진짜 시간', '지금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시대의 명작입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태도를 결정하게 만든 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민환 (직장인)****급류, 정대건, 민음사**

상처에서 도망가지 않고 온전히 그 안에 머물다 용기 내어 수면 위로 뚫고 나올 수 있을 때 비로소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여운이 남았습니다.

**김효정 (워킹맘)****꽃을 보듯 너를 본다, 나태주, 지혜**

누구 엄마로만 살고 있을 때 '너도 그렇다'는 말이 '나'를 다시 기억하게 해줬어요.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걸 새겼습니다.

**최수진 (워킹맘)****천 개의 파랑, 천선란, 허블**

상실과 회복의 순간,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존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예전에는 존재 그 자체의 가치가 막연했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은 느낄 수 있어 공감의 마음으로 인생책으로 선정했다.

**박지은 (직장인)****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윤정은, 북로망스**

과거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 '누가 내 기억을 좀 지워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 내 마음을 씻어줬다. 마법처럼 마음의 얼룩을 지우지 않아도, 좋은 기억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상처를 덮을 수 있다.

**한지수 (도서 MD)****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와이즈베리**

세상을 보는 관점에 벼락같은 전환이 생겼습니다. 능력주의의 부작용을 보완할 새로운 질서의 등장은 아직 요원하게만 느껴지지만, 그 사각지대를 인식하는 눈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지요.

**이은숙 (초등학교 교사)****구원 방정식, 보엠1800, 어나더**

교직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던 때,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던 내게 찾아왔다. 서로 상처였던 두 사람이 결국 빛이 되어주는 상처와 구원의 이야기로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해준 인생책

**이은석 (소방관)****삶이 내게 무엇을 묻더라도, 김미라, 쌤앤파커스**

삶을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는 순간들, 소중한 감정들을 붙잡아 두고 그에 대한 성찰을 던져준다. 현장에서 매번 마주하는 극적인 상황 속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졌왔기에, 이 책의 문장들이 유난히 깊게 와 닿았다.





# 부록

# 100인의 인생책 리스트

## 참여자

### 간호사

안주희, 이부연, 이지은, 조향미,  
황금옥

### 교사

김수진, 김희수, 넘치는, 염지혜,  
이은숙, 조은미, 해피맨, 홍진명

### 도서관 관장

최순나

### 독립서점

로우북스, 마리서사, 번역가의  
서재, 비주얼 컬렉트, 비화림,  
윤슬서림, 종이잡지클럽, 책바,  
해호미, PDF SEOUL

### 마케터

김윤희

### 모티프원

이나리, 이안수

### 성바오로딸 출판사

김경희, 김영주, 노설아, 박은화,  
양은오, 이명희, 이민선, 이지명,  
이화영, 최 미켈리나

### 소방관

백경, 오영환, 이은석

### 소설가

김금희, 이우혁, 이주혜, 정대건,  
황정은

### 승무원

이하영, 이현지

### 시인

김선오, 정호승

### 아트 디렉터

NUA

### 엔지니어

김재호

### 워킹맘

김효정, 최수진

### 의사

남궁인

### 인쇄소 기장

김기남

### 일러스트레이터

수수진

### 자영업

송성민

### 작가

강지영, 요한하리, 이꽃님,  
이지은

### 주부

이원주

### 직장인

김민환, 박지은, 박수진,  
박현진, 와나비, 최인현, 한지수,  
햄스트롱, 홍현종

### 크리에이터

최서영

### 퍼블리 창업자

박소령

### 편집자

김해인

### 프리랜서

김현우

### 학생

강서현, 강연우, 고예원, 권도영,  
김동준, 김상헌, 김서울, 김선준,  
김소윤, 김시후, 김온유, 김준엽,  
김하랑, 다은, 손가온, 손건영,  
손예린, 쇼웨이, 신아정, 신서영,  
윤서연, 위로하는, 이루다,  
이삭주나셀라, 이서하, 이시윤,  
이하준, 이효민, 임마누엘,  
임승규, 임시울, 정재백, 정수빈,  
정예슬

### 학예사

박구연

### 한복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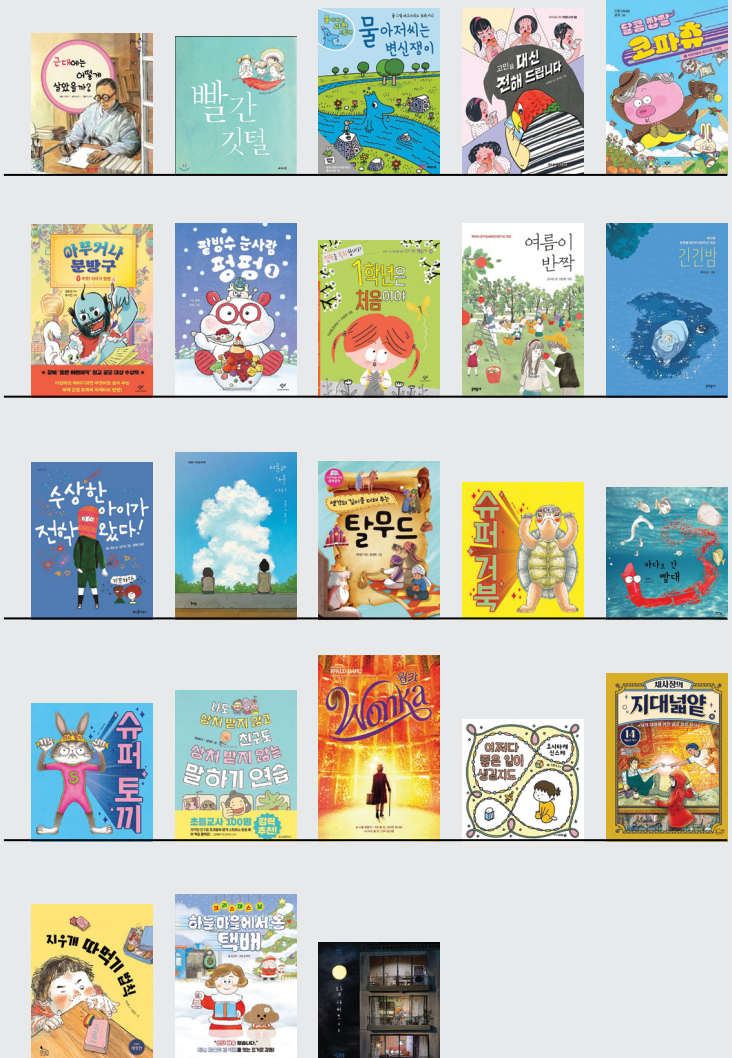
로즈문

### D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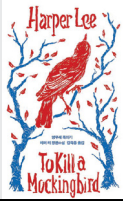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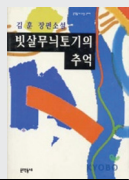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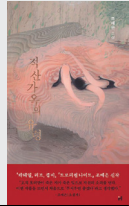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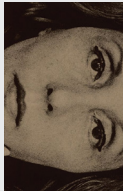
조민창

# Book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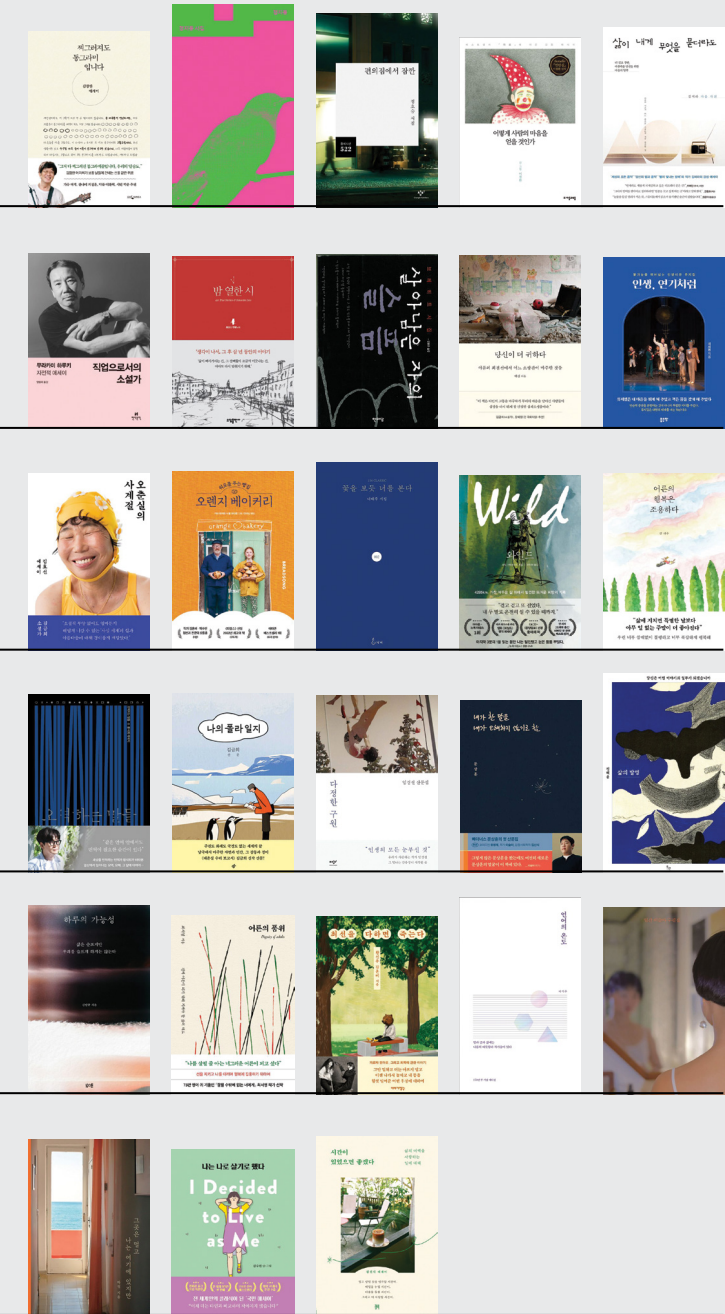
아동, 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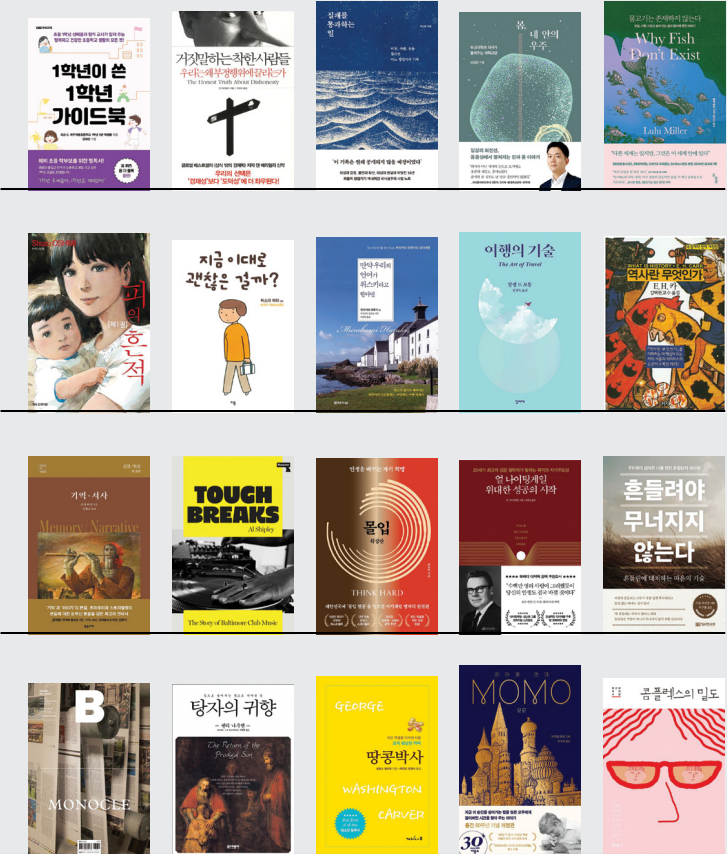
소설

|                                                                                                                                                                     |                                                                                                                                               |                                                                                                                                   |                                                                                                                             |                                                                                                                                       |
|---------------------------------------------------------------------------------------------------------------------------------------------------------------------|-----------------------------------------------------------------------------------------------------------------------------------------------|-----------------------------------------------------------------------------------------------------------------------------------|-----------------------------------------------------------------------------------------------------------------------------|---------------------------------------------------------------------------------------------------------------------------------------|
|  <p>Harper Lee<br/>To Kill a Mockingbird<br/>원작: 하퍼 리<br/>번역: 김민지<br/>출판사: 문학동네</p> |  <p>이연 황자<br/>출판사: 문학동네</p>                                  |  <p>뇌 1<br/>KULTURE SCIENCE<br/>출판사: 문학동네</p>     |  <p>아비지스<br/>출판사: 문학동네</p>                 |  <p>위대한 게츠비<br/>F. Scott Fitzgerald<br/>출판사: 문학동네</p> |
|  <p>눈먼 암살자 1<br/>미셸 오비에<br/>출판사: 문학동네</p>                                          |  <p>핏빛 자오선<br/>미셸 오비에<br/>출판사: 문학동네</p>                      |  <p>갈무리<br/>김민지<br/>출판사: 문학동네</p>                |  <p>대문장<br/>미셸 오비에<br/>출판사: 문학동네</p>       |  <p>빛살무늬토끼의 추억<br/>김민지<br/>출판사: 문학동네</p>             |
|  <p>어두운 상점들의 거리<br/>미셸 오비에<br/>출판사: 문학동네</p>                                       |  <p>발의 노래<br/>미셸 오비에<br/>출판사: 문학동네</p>                       |  <p>날만의 전애와 그후의 일상<br/>미셸 오비에<br/>출판사: 문학동네</p>  |  <p>라기오의 생<br/>미셸 오비에<br/>출판사: 문학동네</p>    |  <p>빛살무늬토끼의 추억<br/>김민지<br/>출판사: 문학동네</p>             |
|  <p>연어<br/>미셸 오비에<br/>출판사: 문학동네</p>                                                |  <p>속<br/>미셸 오비에<br/>출판사: 문학동네</p>                           |  <p>귀여운 것들<br/>미셸 오비에<br/>출판사: 문학동네</p>          |  <p>꿈백화점<br/>미셸 오비에<br/>출판사: 문학동네</p>      |  <p>적선산속의<br/>미셸 오비에<br/>출판사: 문학동네</p>               |
|  <p>PACHINKO<br/>Min Jin Lee<br/>파친코<br/>출판사: 문학동네</p>                           |  <p>구원받지 않은<br/>미셸 오비에<br/>출판사: 문학동네</p>                   |  <p>THE OVERSTORY<br/>미셸 오비에<br/>출판사: 문학동네</p> |  <p>천 개의 파랑<br/>미셸 오비에<br/>출판사: 문학동네</p> |                                                                                                                                       |
|  <p>마리골드<br/>미셸 오비에<br/>출판사: 문학동네</p>                                            |  <p>MARIGOLD<br/>MIND LAUNDRY<br/>미셸 오비에<br/>출판사: 문학동네</p> |                                                                                                                                   |                                                                                                                             |                                                                                                                                       |

시에세이









# 독립서점 책방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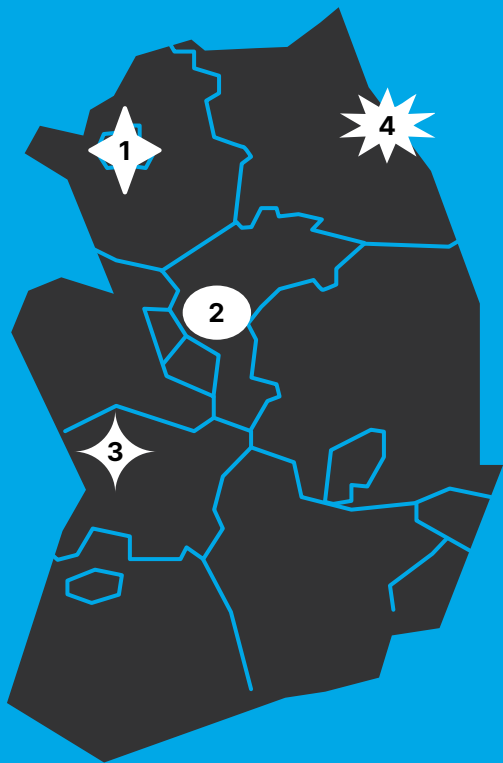
- 1 서울 PDF SEOUL 이태원  
로우북스 마포  
책바 망원  
번역가의 서재 망원  
종이잡지클럽 마포  
비주얼클렉트 성수  
비화림 종로

- 2 청주 해호미

- 3 군산 마리서사

- 4 강릉 윤슬서림

- 5 제주 종이잡지클럽



오늘 만난 인생 책과 마음을 움직인 문장들을  
내 서재에 저장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오랜 시간 사람과 책을 이어온 교보생명이 새로운  
독서 라이프를 도와주는 '서재'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세상 쉬운 독서의 시작, 교보로 부터

내 서재에 등록하기





교보문고